

# 민주당 광주시장 전략공천설... 호남 정치권 촉각

### 과열경쟁 영향... 전남지사·충남지사·경남지사도 거론 지도부 내부 논의한 듯...대변인 "논의 없었다" 공식 부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설이 확산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전략공천설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당 내외에서는 '당 핵심관계자들이 이미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왜냐하면 문제지역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상황에 따라 전략공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내 핵심 관계자들은 최근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광주시장 및 충남지사 후보와 현역 국회의원의 출마가 거론되는 전남지사, 경남지사 후보 등을 놓고 전략공천 여부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당 지도부 인사와 광주시장 후보 경쟁 과열에 따른 전략공천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 지도부 인사가 현재 거론되는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을 모두 제외하고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하는 방안, 그리고 논란이 되는 2~3명의 인사를 경선에서 배제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적절치 않은 행보와 이를 어떻게든 이산화하려는 다른 후보들의 행태에 대해 지도부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

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전략공천은 아직까지 당 지도부에서 확정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략공천 여부를 담담할 '중앙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렸지만 아직 위원 선정 등 세부 구성은 마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전략공천의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달 중반이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도 민주당 당헌·당규상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의 20% 범위 내인 3곳에 대해서 전략공천이 가능하다.

민주당 지도부가 특히, 광주시장 전략공천에 주목하는 것은 최근 불거진 이 전 부위원장의 '대통령 격려' 발언과 '당원명부 불법 사용' 의혹이 나머지 후보들의 불평을 사는 것은 물론 광주 지역사회에도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전략공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도부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 지도부는 광역단체장 공천과 관련해 전략지역 검토를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2일 전북 군산시 한국GM 군산공장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배숙 대표 등 민주당소속 의원들이 조합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바른미래 3개 시도당 전략 간담회 지방선거 '호남 쟁탈전' 본격화 민주당 군산 찾아 GM 대책 촉구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호남을 놓고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과 민주당, 바른미래당의 대결전이 점화할 조짐이다. 우선, 시작은 현재 호남에서 당세가 가장 약한 바른미래당이 하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광주시장위원장과 주승용 전남도당위원장, 김관영 전북도당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하고 6·13 지방선거 호남전략에 대해 논의를 했다. 3개 시도당 사무처장이 함께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당 분당과 바른미래당 정당 과정에서 붕괴한 시도당 조직 복원, 시·도당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 공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시도당 조직 정비와 인재 영입 강화, 호남경제정책 발족 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도당 및 지역위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천이 중요한 만큼 그동안 소외받은 청년·여성·장애인을 우대하는 공천을 통해 미래정치를 말도복 하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활동하는 지역인재들이 많은데도 그동안 정치장벽에 막혀 기회가 없었다"며 "바른미래당은 그런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기회를 줘서 정치발전의 이끄는 그런 선거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외연 확대라는 당의 목표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호남의 지지 회복이 중요하다"며 "호남의 아픔과 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고토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대책 마련에 주력하며 호남 구애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우선 대응책 논의를 위해 국회 특위 설치를 제안하는 동시에 한국GM 대주인 한국산업은행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배숙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군산공장 회생 및 전북 일자리 회복을 위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국회 차원에서 구성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로 군산 등 전북 지역은 최악의 일자리 감소 사태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산업정책에 전북이 최우선적 고려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M군산공장폐쇄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은 "지난 9일 한국GM 이사회에 구조조정 안건이 올라왔을 때 당시 산업은행이 파견한 사외이사 3명이 기권했는데 (부결로 표결했다면) 폐쇄가 무산될 수 있었다"며 "산업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즉각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지원 "민주-민평 선거연대 생각해 볼 만"

### 정치권 민평당 '희망사항' 분석

민주당과 민평당의 선거연대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볼 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만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그렇게(선거연대로) 간다고 한다면 민평당과 민주당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의원들 간에 삼삼오오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관건은 서울시장과 경기도 시인대 만약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수 세력은 분열되고, 진보개혁 세력이 분열돼 있다면 (선거연대를)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 "민주당이 너무 자신을 하는 것 같다. 선거는 오만하

면 진다"며 "보수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 팽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후) 꼭 아웃된다고 볼 수도 없다.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선전을 한다면 좀 복잡해질 것"이라며 "큰 씨름판이 생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박 의원의 선거연대 전망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민평당 일각의 '희망사항'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현되기까지는 걸림돌이 그만큼 많다.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선거연대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성사되더라도 민주당 후보를 위협할 수준이 될지는 미지수"다며 "또 민평당과 선거연대를 하는 것이 전국 선거구도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선거연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당내 일반적 분위기"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홍걸 "영암·무안·신안 재보선 출마 검토할 겨를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의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진의 아침저녁'에 출연해 '아버지의 고향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과거에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 호남뿐만 아니고 수도권도 다 검토를 하고는 있었는데, 그때는 어디에서

보낼이 열린다 이런 것이 정해지기 전의 이야기"라며 "아직은 언론이고, 당에서도 저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민주당계 박지원 의원과 전남지사 선거로 맞붙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전혀 그냥 만들어낸 얘

기 같다"면서 "희박하다"라고 말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영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청와대 회동'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 "그래도 만남이 성사될 뻔했다는 그 정도만으로도 우리가 중재자로서 북미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인 것 아닌가"라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평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oticon PEOPLE FIRST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이사업역 | 전남대 지질학과 졸,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졸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